

열정의 불

양초는 처음 불길이 붙은 모습 그대로
다 태워져 없어질 때까지 그 모습을 유지합니다.
바람에 흔들려 위태로울 때도 있지만
꺼지지 않는 이상, 항상 같은 밝기로
주변을 환하게 비춥니다.

처음 세아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의 열정,
지금도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잠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 불을 지피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변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열정을 간직한 채 나아가세요.

열정은 단 몇 %의 적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초처럼 한결같은 열정의 불을 피울 때,
우리의 손끝에서
세아의 가능성이 현실로 이뤄집니다.



Vol. 340

JULY¹AUGUST 2012

C o n t e n t s



FOCUS ON

- 02 **Hot&Issue**
- 세아제강,
열처리 QT 설비 양산 돌입
- 세아베스틸,
전주비전대, 군장대와 산학협력 체결
- 04 **SeAH Special Report**
- 세아 E&T 대전공장,
터보 기기 전문 공장으로 거듭나다
- 세아네트웍스,
케냐의 기술 선진화에 날개를 달다
- 세아그룹,
CI 리뉴얼 디자인 발표
- 10 **Open Your Team**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생산팀
- 16 **SeAH Super Star**
세아베스틸 단조사업본부
단조팀 박종현 대리

IMAGINE SeAH

- 20 **프롤로그**
계발을 뛰어넘어 혁명을 이루다
- 22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의 자기혁신 리더십
- 24 **테마 인터뷰**
세아로지스 류재섭 대표
- 26 **테마 스토리**
자기혁명,
새로운 나를 만드는 도전
- 28 **테마 현장**
세아그룹 팀장 역량강화 교육 현장
- 30 **직장인 생활백서**
자기 삶의 혁명가가 되어라
- 32 **우리말 바로 쓰기**
좌충우돌 세철 씨의 직장어사전

HARMONY OF SeAH

- 34 **I ♥ SeAH**
세아베스틸 사우 자녀들의
철강캠프 도전기
- 38 **지구촌 별별사람**
인도네시아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으려면
- 40 **어느 멋진 순간**
세아예삽 야구광들의 열정
사직구장 응원기
- 44 **세아뉴스**
- 47 **사우동정**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아 가 족

세아그룹 가족들을 위한 사보

<세아가족> 통권 340호 2012년 07+08월호

발행일 2012년 8월 20일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홀딩스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3783-8163

디자인·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표지촬영 다부스튜디오 02-766-8025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아제강, 열처리 QT 설비 양산 돌입



세아제강이 포항공장에 QT 설비 도입을 마치고 7월부터 양산 가동에 들어갔다. QT 설비 도입으로 세아제강은 보다 고강도의 제품 생산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한편, 수요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품목 공급이 용이해졌다.

글: 세아제강 포항 안상철 차장, 김기홍 대리

산업 전반에서는 여전히 석유나 가스 등 화석 에너지의 사용이 주류를 이루고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석 에너지 개발을 위한 OCTG(Oil Company Tubular Goods) 시장에 세아제강이 공급해오던 API 5CT J55 제품은 Green Tube 상태로 보내져 미국 현지에서 별도의 QT(Quenching & Tempering) 열처리와 나사 가공을 거쳤다. 그런데 올해 세아제강 포항공장이 API 명품공장을 선언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확보에 주력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직접 열처리를 통한 제품의 고강도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자 QT 설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QT 열처리는 가열 방식에 따라 Inductor, Furnace, Inductor + Furnace Type으로 구분되는데, 세아제강 포항 공장은 가열의 효율과 라인의 스피드를 고려하여 Inductor 방식의 열처리 기술을 도입했다. 생산 가능한 강관 사이즈

는 외경 4½"~9", 최대 두께 15mm, 최대 길이 13.8m이며, 생산 규모는 연간 42,000t(3shift)이다. 세아제강은 이로써 L80, N80Q, P110 등 강관을 OCTG 시장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

QT 열처리 설비 가동으로 세아제강은 제품 개발과 품목 다변화의 폭이 넓어지면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 또한 품질이 한층 높아진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OCTG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점차 석유나 가스의 채굴 환경이 까다로워지면서 고성능의 OCTG 강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아제강은 지속적으로 High Collapse, Enhanced Burst and Sour용 제품 기술 개발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OCTG 완제품 생산을 위한 최종 나사 가공 연계와 Premium 나사 기술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세아베스틸, 전주비전대, 군장대와 산학협력 체결



세아베스틸이 전북 소재의 전주비전대, 군장대와 각각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8월 8일 세아베스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 홍순직 총장, 군장대 이승우 총장과 함께 세아베스틸 이승휘 대표 외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글: 세아베스틸 기획팀 이정화

이번에 세아베스틸이 체결한 협약은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산업 인력을 적극 육성한다는 취지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뿐만 아니라 세아베스틸은 전주비전대, 군장대와 함께 각각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두 곳의 대학 역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맞춤형 인재 특별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는 실무교육으로 운영하게 된다. 군장대학은 기계철강 및 플랜트 등 융합부품 소재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주비전대학은 자동차와 조선해양 분야를 중심

으로 세아베스틸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특별과정을 공동 운영하게 된다.

특별과정에는 세아베스틸 생산공정과 관련한 전공과 현장 체험 실습, 직업기초교육, 인성강화교육이 포함되며, 이밖에 금속재료나 제강, 비파괴 기능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과정도 시행된다. 특별과정 운영을 위해서 우선 각 대학별로 20명 이내 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실습과 연계한 형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세아베스틸 인턴십에 참여하여 실무능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세아베스틸은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우선 채용의 혜택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협약 체결로 전문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재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인재 육성에 필요한 기회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세아 E&T 대전공장, 터보 기기 전문 공장으로 거듭나다

세아 E&T가 지난 2월 앤틀을 인수하면서 터보 블로워(Turbo Blower)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알렸다. 터보사업부에서 생산하는 터보 압축기 사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전주에 있던 제조공장을 터보사업부가 있는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세아 E&T의 터보 기기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글: 세아 E&T 터보사업부 영업팀 민태준 팀장

앤틀, 세아 E&T 대전공장으로 이전

세아 E&T가 인수한 터보 블로워(Turbo Blower) 제조업체 앤틀이 6월 터보사업부가 있는 대전공장으로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터보 압축기와 다양한 시너지를 고려하여 기존 공장을 확대 증축하여 거점을 마련했으며, 터보 기기 전문 R&D 센터도 함께 신축했다. 앤틀의 이전으로 세아 E&T 대전공장은 기존의 터보 압축기와 더불어 터보 블로워를 핵심 사업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터보 기기 전문 공장으로 거듭나게 됐다. 앤틀이 대전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한 배경에는 대전공장에서 생산하는 터보 압축기의 생산 시스템이나 적용되는 기술이 터보 블로워와 유사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공장의 부지, 설비 등 기존 인프라의 공유가 가능하여 이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품질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High Speed Motor



대전공장 전경

터보 블로워 시장 진입으로 한 단계 도약

블로워 시장은 전 세계 약 10조 원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 앤틀이 생산하고 있는 터보 블로워의 경우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소위 떠오르는 신흥 시장으로 불린다. 터보 블로워에는 에어 베어링으로 구동부를 지지하고 인버터를 이용해 모터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공기를 1-2기압으로 압축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의 몇 개 회사만이 개발에 성공한 첨단 기술로, 자기부상 베어링 기술과 함께 첨단 고급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송풍기라고도 불리는 터보 블로워가 주로 적용되는 곳은 하수와 폐수처리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이후 하천의 오염으로 폐수처리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설의 필수 장비인 블로워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과거에는 재래식인 루츠 블로워(Roots Blower)가 주로 적용됐으나, 최근 교체 주기로 접어들면서 최신 기술의 고효율 터보 블로워로 활발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터보 블로워는 오일 대신 공기를 이용한 베어링으로 구동되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일 뿐만 아니라 별도의 증속 기어에 연결하지 않고 인버터를 이용한 자체 고속 회전을 일으켜 소음이나 진동이 매우 적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아, 에너지 절감 비용만으로 재래식 블로워보다 2배 이상 비싼 설비 투자비용을 2~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시대적 요구와 잘 부합하여, 국내 수처리 시장에서는 이미 터보 블로워가 표준화 되고 있다. 해외 수처리 시장에서도 점차 터보 블로워의 적용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업체들도 관련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터보 블로워 시장의 사업 환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갖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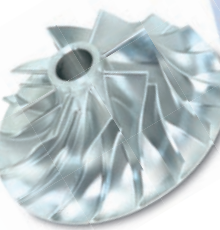
세아 E&T 터보사업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터보 압축기는 400마력, 5기압 이상의 대형 터보 기계에 적합한 증속 기어 방식이어서 이보다 작은 소형 압축기에는 터보 블로워에 적용되는 인버터를 이용한 고속 모터와 공기 베어링 기술이 더 효과적이다. 세아 E&T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이 고속 모터와 공기 베어링 기술을 소형 압축기에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터전에서 가동을 시작한 터보 블로워 공장과 함께 새로 출범한 R&D 센터도 터보 압축기와 터보 블로워의 연구 인력을 통합하여 7월 1일부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R&D 센터에서는 터보 기기의 공력 설계 및 해석기술 개발, 고속 회전축 시스템 설계기술 확보, 유동 해석 및 성능 시험, 그리고 산학 협력을 통한 R&D 인프라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터보 블로워 10개와 터보 압축기 2개 모델에 대한 성능 개선 및 고효율 제품 출시를 위해 성능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또한, 2013년까지 대형 터보 블로워 및 냉매 압축기의 신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는 글로벌 품질 경쟁력과 세계적 고효율 제품을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터보 기기 전문 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Inverter[좌] 앤틀공장 내부[상]



Compression Part[상]
터보 블로워 제품[하]

세아네트웍스, 케냐의 기술 선진화에 날개를 달다

세아네트웍스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센터 건립에 한창이다. 우리나라 정부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케냐의 기술 선진화중심이 될 기술개발센터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세아네트웍스가 그 역할을 맡게 됐다. 글: 세아네트웍스 해외사업팀 정준용

세아 케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센터 확장 사업 추진

세아네트웍스가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30km 떨어진 자유수출경제지역(EPZ) 아티리버(Athi-river)에 위치한 기술개발센터이다. 이 센터는 과거 1,440만 달러의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받아 건립된 곳으로, 케냐 전체를 통틀어 총 5개의 기술훈련센터 중 가장 최신의 건물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858만 달러의 추가 EDCF 지원으로 확장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아네트웍스가 이 사업을 수주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확장 사업은 시설 공사에 국한되지 않고 건축 사업을 비롯해,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등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건축 사업으로는 IT 기반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ICT 센터, 여학생 기숙사, 자동차 정비실, 헬스케어 센터 등 4개의 공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6월 ICT 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모든 건설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각부분별 지원사업 원활히 진행 중

연수생 초청 사업으로는 경영,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IT 등 총 6개 공과에서 37명의 연수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데, 2011년 8월 말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2~3주 과정의 기술 연수를 이미 완료했다.



정문에서 본 ICT 센터

각 분야별로 우수한 국내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는 한편, 한국문화 탐방과 산업 시찰 등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도 도모했다. 참여했던 연수생들은 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자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전문가 파견 사업은 분야별 1명씩 모두 6명의 전문가를 현지로 파견하여 2개월 동안 기술 지도와 강의, 자문 등 다양한 형태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되는데, 이미 5명의 전문가들이 현지에 다녀왔으며, ICT 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IT 기술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기자재 지원 사업은 6개 공과 및 신규 개설 공과의 낙후된 교육장비 교체와 최신 교육훈련 장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미 1차로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봉제 분야에 관련된 기자재 182종, 총 949점을 지원했고, 지난 2월 현지에서 기자재 설치와 장비 교육을 마쳤다. 그리고 7월에 2차로 신규 건축 중인 ICT 센터, 자동차 정비실, 여학생 기숙사, 헬스케어 센터 등 4개 건물에 필요한 기자재 314종, 총 3,112점을 보급했다. 현재 센터 창고에 보관하면서 건축 공사가 완료되는 9월경 기자재 설치와 주요 장비 취급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프리카 지역에 퍼지는 세아의 이름

케냐에서의 추진 사업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했다. 7월 8~11일 공식 방문일정으로 김 국무총리는 키바키(Kibaki)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딩가(Odinga) 총리와 회담 일정을 가진 후, 세아네트웍스의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기술개발센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김찬우 케냐주재 대사를 비롯한 케냐의 광부장관, 노동부장관이 동행했으며 이들은 ICT 센터의 신축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센터를 둘러보면서 케냐 학생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케냐 시찰에 나섰던 김황식 국무총리는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기술개발센터의 방문이 가장 뜻 깊었고, 학생들의 실험 및 실습 장면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으며, 동행했던 케냐주재 한국대사 등도 극찬했다는 후문이다.

케냐의 기술개발센터에서는 현재 경영,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봉제, IT 등 총 6개 공과에 걸쳐 45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세아네트웍스가 추진하는 확장사업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최신식 설비와 복지시설 운영으로 이곳은 케냐의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기술자 양성을 위한 인재 사관학교이자, 동아프리카 지역의 기술개발 랜드마크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세아네트웍스에게도 향후 유관 분야의 사업 추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에도 세아네트웍스는 케냐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케냐의 기술개발 선진화에 동참하는 한편, 동아프리카 공동체 시장의 중심지인 케냐를 기점으로 향후 아프리카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서아프리카 국가인 카메룬에서 추진하려는 고등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에 107억 원 규모의 기자재 지원사업을 수주해 7월 18일 계약 체결을 마쳤다.



전문가 파견 Milling Machine 장비 교육(상)
현장설명장면(중), 회의실장면(하)

세아그룹, CI 리뉴얼 디자인 발표

세아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세아홀딩스는 이미지 개선으로 세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1996년 제정된 CI(Corporate Identity) 디자인과 매뉴얼의 개편을 4월부터 준비해왔다. 세아홀딩스는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그룹의 시각적 상징성과 차별성을 부각하여 세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리뉴얼한 CI 디자인은 매뉴얼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9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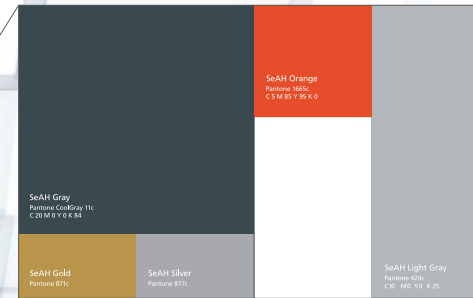


시대에 맞는 기업 가치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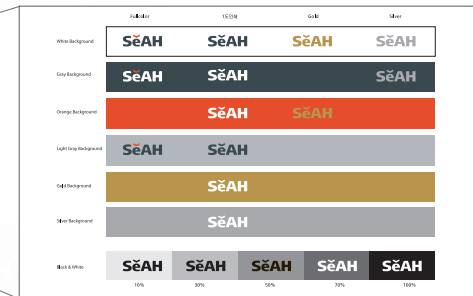
세아그룹의 CI 디자인 개편 작업은 세아가 걸어온 50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나아갈 50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업 가치를 재조명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 심볼 마크에는 세아의 발전하는 위상과 더불어 국제화에 적극 대응하는 진취성, 미래 지향성, 구성원 간의 일체감이 녹아 있다. 16년 만에 진행하는 디자인 개편 작업에는 동일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시대에 맞는 비주얼 언어와 의미로 재조명하여 100년 기업을 향한 세아의 의지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CI 디자인은 '신뢰'와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이미지로 함축된다. 탄탄한 사업기반으로 철강제조업의 정통성을 살리는데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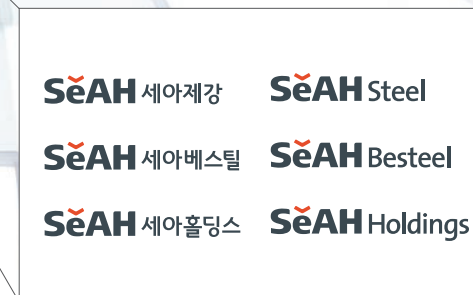
Color Palette



Color Usage



Signature



욱 집중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이자 에너지로 구성원의 열정을 형상화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었다. 특히 다양한 시대 변화의 흐름에 유연성 있는 자세로 소통하고,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새롭게 반영됐다.

신뢰와 열정으로 함축된 비주얼 언어

개편된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꼽자면 곡선을 가미하고 전용 색상을 교체한 점이다. 우선 서체 디자인의 윤곽에 곡선을 살리고 다소 슬림하게 만들어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을 가진 이미지를 살렸다. 고객의 신뢰를 변함없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글로벌 경쟁시대를 유연한 자세로 적극 대처해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기업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컬러는 Cool Gray를 적용하여 주력 사업인 철강제조업의 전문성과 자신감, 전통성을 한층 더 강조했다. e자 상단의 부메랑을 연상시키는 모양의 패턴 요소 역시 단단함 속에 유연함을 나타내는 가운데 강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형태를 띤다. Orange 컬러는 탄탄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핵심 경쟁력 창출의 원동력이 될 구성원들의 열정을 상징한다.

일체감과 시각적 이미지 강화 기대

CI 디자인 리뉴얼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CI 매뉴얼의 개편도 함께 진행됐다. 세아홀딩스는 1996년 제작한 기존 CI 매뉴얼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다양한 매체와 표현 수단을 고려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개편은 회사와 임직원들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아이템에 그래픽 모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계적인 비주얼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픽 모티브를 개발해 기업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아이템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세아 브랜드가 가지는 신뢰와 열정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강조해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래픽 모티브와 체계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세아만의 Look & Feel을 창출하여 계열사별 협소한 이미지를 뛰어넘어 모두 하나의 세아가족으로 아우르는 그룹의 통합된 이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로 계열사와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신규 사업의 추진에서 세아가 가지는 신뢰와 열정의 이미지를 활용해 경쟁사와 차별하고, 사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리뉴얼한 CI 체계는 먼저 사인류, 서식류, 총무류, 총보류 등에 적용하고, 세아 브랜드를 사명으로 사용하는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생산팀

세계 일류를 위한 힘찬 날개짓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생산팀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 1공장과 2공장으로 나뉘어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충주공장은 그 적극적인 행보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곳. 세아특수강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줄 충주공장 생산팀에 다녀왔다.

성장과 발전의 메카 충주공장 생산팀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은 2006년에 세워졌다. 현재 1공장과 2공장이 1km 간격을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는데 2공장은 2011년에 준공되었다.

포항공장에서는 CHQ Wire와 CD Bar를 함께 생산하지만, 충주에서는 1공장이 CHA Wire를, 2공장이 CD Bar를 주로 생산한다. 애초에는 CHQ Wire만 생산하려는 계획하에 1만 8천여 평의 부지에 1공장만 지었지만, 신규 수요가 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CD Bar 생산공장까지 지어졌다. 충주공장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는 포항과 달리 증설이 가능해 사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을 실행하기에 적합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주공장은 2006년도 건립 이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10% 정도의 성장을 꾸준히 달성해왔다. 성장 원동력은 다양했다. 우선 업계 자체 수요가 늘어났던 것이 큰 요인. 자동차 부품소재 판매가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실시한 투자와 증설이다. 고객의 요구가 날로 다변화되고 까다로워지는 흐름에 발맞춰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어 온 것. 들어온 설비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기술개발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업계 2위였던 세아특수강이 압도적인 수치로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었고, 나날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동종 업체들이 세아특수강의 설비, 제품구성 등을 벤치마킹하며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것도 일견 당연하게 보인다.

세계 최고 품질을 지향하는 선재파트

1공장 선재파트의 강병준 파트장은 충주공장의 장점을 “빠른 현장의 움직임”이라고 말한다. 관리직 사원의 작업 지시와 그에 따른 현장의 움직임이 매우 신속하다는 것인데, 현장을 잘 파악하고 현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되, 영업사원과 현장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영업파트의 요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대응해 수용해 줄까 하는 부분에 늘 공을 들이고 있다.

2006년도에 공장이 세워지고 자리를 잡기까지 직원들 모두가 안팎으로 고생을 했는데, 2006년도 5천 톤에서 5년 뒤 만 톤으로 생산량이 무려 2배가 뛰어올랐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충주공장 생산팀에게 가장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강병준 파트장은 “지속적으로 설비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미소를 짓는다.

충주공장의 인력은 젊다. 젊기 때문에 노후
우나 연륜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숙련
된 기술자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
꾸준한 교육을 통해 수준을 향상시켜왔다.
안전 관리 또한 아무리 사소해도 그냥 지나
침이 없다. 현장일수록 안전 교육은 기본 중
에 기본.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사장님들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기본 지키기
에 충실할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
기분을 지키면 사고는 없다는 생각을 끊임
없이 주입시킨 덕분에 충주공장은 이렇다
할 사고 하나 없는 모범 사업장으로도 손꼽
힌다. 세아특수강은 현재 선재를 연 28만 톤
생산하는 세계 1위의 기업이다. 생산량에 있
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품질의
1%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 수요자들의 요
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품질
이 업그레이드되어 왔지만, 아직은 미비한 점
을 반드시 보완해 생산량과 품질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영업사원, 현장 오퍼레이터 등 내부 고객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
객은 10을 원하는데 내부에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동떨어지게 가면 안되니까요.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들과의 회식에도 참석해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어
드바이스를 하는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합니다.”
강병준 파트장의 다부진 말이다.

확장된 신규 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2공장은 세아특수강의 신규 사업을 맡고 있는데, 세아특수강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이 곳에서는 주로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Bar to Bar
와 Peeled Bar를 생산하고 있다. 작년 8월 Bar to Bar 설비를 처음 들여놓은 후 현재
목표대비 약 90%의 생산량을 달성한 상태이다. 2공장의 Bar to Bar나 Peeled Bar
설비는 세계 최고로 평가 받고 있으며, 생산성이나 품질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이룬 이 원동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포항공장의 CD
Bar 사업으로 2차 가공 분야에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것이다. 기존 CD Bar 제품과는 다르지만 Bar to Bar나 Peeled Bar는 유사한 프로
세스를 갖고 있었고, 2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신규 사업
에 그대로 적용, 눈부신 성과를 낸 것이다.
“설비 투자가 되고 커가는 과정이라 새로운 설비가 들어올 때마다 늘 설레고 한편으
로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놓은 우리 제품이 시
장에서 호평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쁘지요.”

봉강파트 장효영 파트장의 말이다. 12월이 되면
태선전용 CDM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
정이며, QT 설비 역시 정상 가동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그렇
다면 장 파트장이 봉강파트의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객만족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
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
만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 겸허한 마음으
로 일을 대하려고 합니다.”
오랜 경력의 기장, 계장들을 필두로 젊은 직원들
과 함께 체육대회, 단합대회를 하면서 하나된 분
위기를 조성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회사 매출 1조 원 달성을 위해 2공장이 하
루 빨리 회사 이익창출에 크게 일조하고 싶다는
다부진 포부를 잊지 않는 장효영 파트장. 소형부
품소재부터 고부가가치의 대형부품소재까지 2
공장의 보다 확장된 사업영역은 세아특수강이
글로벌 중합부품소재 기업으로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MINI
INTERVIEW

성장하는 충주공장, 기대해주십시오

충주공장은 생산량을 늘리고 동시에 신규 사업을 담당하는, 성장 위주의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팀은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은 현장 인력을 거느리고 있
기 때문에 무엇보다 모범적이고 건실한 작업 태도와 생활이 중요합니다. 충주
는 워낙 지역이 좁아서 하루만 지나도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금세 소문이 나
기 때문에 충주공장 직원들은 안팎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세아특수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회사의 발전이 우리 공장의 손에 달려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 정신인 ‘술선수범’을 직원 전체가 늘 실천하려고 합
니다. 70%가 넘는 자동차 부품소재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동
차 내수시장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바, 다양한 분야로 눈을 돌려 사업
을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외에 조선, 기계, 전자 분야가 바로 그것들이
지요. 2공장도 조선분야에 진출하고자 투자한 것으로 40mm 이하의 소형 바
위주로 생산하다가 지금은 130mm 설비도 갖췄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만
큼 성과를 내었지만 2공장이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
지만 곧 좋은 성과를 내리라 믿습니다.
보통 일반 철강업체들은 험하고 지저분하다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충주공장
은 좀 다릅니다. 특히, 2공장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만든 제품이 더 양질의
제품이 될 것이라는 신념하에 ‘클린 앤 그린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
기 경영대책회의 때는 2공장이 우수상을 받기도 했지요. 올해와 내년은 세계
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공장에서는 내실을 기하는 기회
로 삼아 느슨했던 원가절감, 품질 등
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충주공장 생산팀
박상화 팀장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생산팀

선재파트

이슬 예의 바르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다. 선재파트의 활력소이자 나이 어린 엄마(?)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
강병준 선재파트장 결단력과 추진력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과의 친화력도 뛰어나다. 성실하고 머리가 좋은 만능맨



박성화 팀장 등직함과 우직함으로 존재감이 강한 생산팀의 리더. 책임감이 돋보이면서도, 팀원들을 형제처럼 다독이는 탁월한 형님리더십을 발휘해 생산팀을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봉강파트

장효영 봉강파트장 파트장으로서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매우 두텁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스타일
한주호 항상 밝고 긍정적인데 직원들과의 친화력이 매우 좋다.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도 원활한 봉강파트의 성실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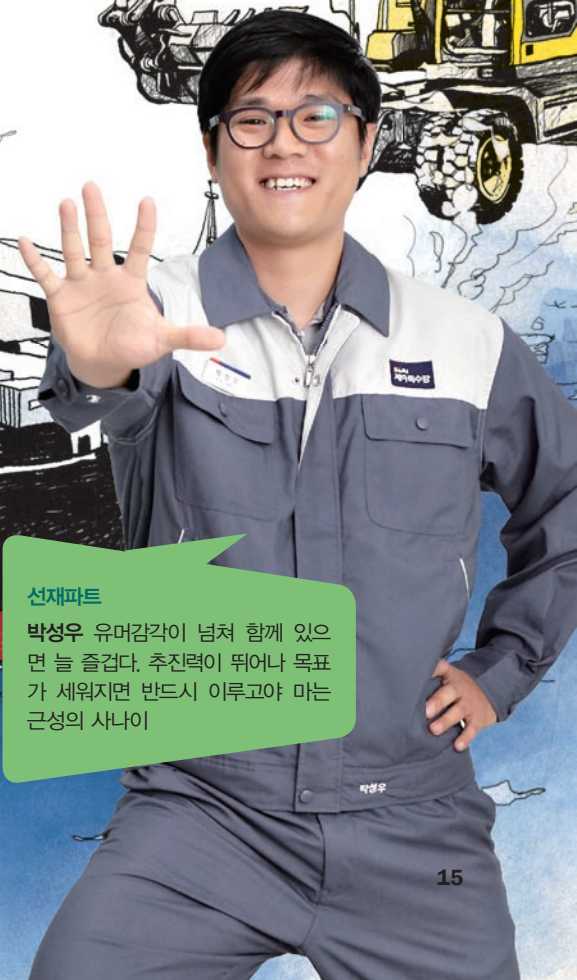
선재파트

안일환 경상도 사나이답게 무뚝뚝하지만 알고 보면 속 깊은 남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 인기가 좋다.



선재파트

박성우 유머감각이 넘쳐 함께 있으면 늘 즐겁다. 추진력이 뛰어나 목표가 세워지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근성의 사나이



성공?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치명적 매력 지닌 차세대 선장

모험심으로 뚝뚝 뚫친 유쾌한 선장 잭스패로우의 모습을 닮은 세아베스틸의 차세대 리더, 곽종현 대리.
세아베스틸의 최장신답게 흰철한 외모와 시원시원한 성격, 유쾌한 웃음은 영락없는 선장의 모습이다.
주변 사람들을 아우르며 세아베스틸호의 키를 더 큰 바다로 향하게 할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갖는 것이 우선

세아베스틸에는 중심이 되는 두 개의 축이 있다. 환봉, round bar 등 압연 제품을 생산하는 특수강사업본부와 배에 쓰이는 crankshaft, 자동차 범퍼나 핸드폰 케이스의 소재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플라스틱 금형강을 생산하는 단조사업본부가 바로 그 축. 그 중, 곽종현 대리가 소속된 단조사업본부는 단조의 생산관리부터 기술, 주조, 가공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단조사업본부에서 단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곽종현 대리는 올해로 입사 10년차. 입사 당시 일반 단조팀에서 근무를 했던 곽 대리는 2009년 대형 단조팀이 생기면서 보직을 바뀌 현재까지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대형’이라는 말만 듣고 큰 것을 만드니까 일이 수월해 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형 단조는 형상이 없는 일반 단조와는 달리 복잡한 형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단조 작업보다 더욱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죠.” 오히려 대형 단조가 더 세밀한 작업을 요한다고 설명하는 곽 대리는 대형단조팀의 창단 멤버로 그가 맡은 일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대형단조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곽 대리는 현재 세아그룹의 핵심인재 육성 과정인 ‘챌린지 리더’ 5기 멤버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이 진행될수록 차세대 리더로서 회사생활에 더 열정적으로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그는 “제가 쌓은 노하우에 리더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더해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업무에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며 자신으로 인해 더욱 탄탄한 세아베스틸이 되기를 희망했다.

뿐만 아니라 곽종현 대리는 최근 rotor TF팀의 구성원이 돼, rotor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rotor는 회전하는 기계장치의 축을 중심으로 축과 같이 회전하는 회전체를 말하는데, 세아베스틸에서 구성된 TF팀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rotor를 개발 중에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아베스틸은 이 부분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신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곽 대리는 말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자는 좌우명을 바탕으로 매사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곽 대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한다면 그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열정도 생길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라며 일에 대한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곽 종 현

세아베스틸
단조사업본부
단조팀 대리





회사와 가정, 어디서나 충실하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세아가족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곽 대리는 현재 단조사업본부의 비전인 'high-tech forge master'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즉 고급 단조기술의 달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단조사업본부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좋아하고, 몰두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조금은 있기 마련. 그래서 곽 대리는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닌다. TV에 나왔던 곳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찾은 맛집에 가서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낸다. 또한 집 앞에 있는 은파유원지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등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하지 않은 다정다감한 가정이다.

직장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곽 대리에게는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바로 TF팀원으로서 내년까지 rotor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과 세아베스틸의 단조사업본부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형강 수출 계산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는 불량률 제로 등 원가 경쟁력 확보에 일조하고 싶단다.

좌우명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며, 그 일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곽 대리. 세아베스틸이라는 배를 함께 항해하는 직원으로서, 또한 이 배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 빛날 그의 모습이 기다려진다.

profile

이름 곽중현

좋아하는 것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싫어하는 것 찰나의 실수(아차하는 순간 불량률이 생긴다)

좌우명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해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 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좋아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이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01

매력적인 선장 잭스패로우, 곽중현 대리와 공통점을 발견하다!



번뜩이는 재치에 열정을 더해
힘찬 미래를 만들어간다!!



02

모험심 무엇이든 도전하라.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저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기 마련.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길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한다.

03

유쾌함 한 직장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유쾌함으로 직장 내에서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선보이며 동료들과 오랜 시간 함께 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동료, 후배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울리며 유쾌한 시간을 보낸다.

04

결단력 확신이 생기면 과감하게 밀어붙인다.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닌 정보 수집과 철저한 준비 끝에 확신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태테크 실력 또한 수준급. 정보 수집을 위해 매일 신문을 읽으며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미련 없이 결정한다.



05

리더십 배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선장, 잭스패로우. 것처럼 곽 대리 또한 세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졌다.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싶다는 그. 최고의 단조 생산 기술을 가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06

사람이 모이는 매력 잭스패로우는 어디를 가든지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유쾌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곽 대리 또한 마찬가지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았다. 활발한 성격과 뛰어난 연변술로 사람들에게 넘치는 매력을 보여준 덕분에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07



계발을 뛰어넘어 혁명을 이룬다

자기계발(Self-improvement)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발달하게 함.

자기혁명(Self-revolution)
이제까지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것,
한층 고도의 역량을 세움으로써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옴.

지금까지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계발을 바탕으로 혁명을 이룰 때입니다.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우리로 탈바꿈 할 때,
눈앞에 펼쳐질 세아의 미래는 더욱 밝아옵니다.



세종대왕의 자기혁신 리더십

자기혁신

“왕이 되기 전의 세종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종대왕 강의를 할 때면,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세종대왕이 이룩한 업적도 대단하고, 또 그의 성실한 자세도 본받을 만한 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는 <태조실록>과 <태종실록> 등을 살살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종의 성장과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을 법한 사건을 37건 가량 추려내 보았는데, 그 내용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글: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 박현모 연구실장

어린 시절 세종은 세종답지 않았다?

세종은 뜻밖에도 그리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두 살 때 아버지 이방원이 개국 공신 정도전 등을 적살한 ‘제1차 왕자의 난’이 있었고, 네 살 때는 큰 아버지 이방간이 궁중쿠데타를 꾀하려다 발각되어 유배를 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나고 자란 서울의 준수방, 즉 지금의 경복궁 서편의 효자동 일대는 종종 살벌한 분위기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다음 계속된 부모의 불화였지요. 어머니인 원경왕후는 태종 이방원이 계속해서 후궁을 들이고, 자신의 친정 동생들까지 숙청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곤 했습니다. 태종실록을 보면 당시 조정에서는 폐비, 즉 이혼까지 논의되기도 했는데 이런 사실들은 세종의 형제들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세종이 아내 소헌왕후 심 씨를 매우 사랑했고, 심지어 그녀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후비를 들이지 않는 등 부부의 정의를 지킨 것은 자식들에게만은 화합된 가정을 보여주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만형 양녕대군의 탈선과 비행도 심각한 수준이었죠. 세자 양녕의 수많은 비행실적은 세자 교체를 정당화하려는 사관의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양녕대군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여자와 매 사냥

에 깊이 빠져 있었고, 가끔씩 아버지에게 대들어서 부모의 한숨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태종은 키가 작았고 양녕은 키가 크고 몸집이 좋았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형 양녕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은 세 살 아래 충녕의 눈에 아슬아슬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어린 시절 충녕의 성정 역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충녕은 일러바치기 잘하는 왕자였습니다. 태종실록에 보면, 외삼촌 민무회로부터 안 좋은 말을 들은 충녕이 즉시 부왕 태종에게 그 사실을 알려 외갓집이 풍비박산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충녕은 또한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종 재위 16년째인 1416년 한 여름에 태종은 상왕인 정종을 모시고 경회루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이때 신하들은 당시 지식경쟁의 상징이었던 시구 잇기[聯句]를 경쟁적으로 벌였습니다. 이때 충녕은 그 어렵다는 <서경>의 한 구절을 들어 한껏 학문을 뽐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엔 세자 양녕이 있었는데, 아나나 다를까 태종은 양녕을 돌아보면서 “왜 너는 학문이 이만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때 충녕의 나이 이미 스무 살이었고, 또 누구보다 영리했던 그가 자신의 이런 행동이 형을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책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 세종대왕

이처럼 문제 가정에서 자랐고, 결함 많은 사람이었던 세종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충녕에게는 책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부왕 태종에 따르면 “충녕은 자못 배우기를 좋아하여, 몹시 추울 때나 몹시 더울 때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어린 충녕은 그야말로 굉장한 책벌레였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 “내가 책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았고, 세상의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세종은 예능(藝能)에 정통했습니다. 태종은 푹푹하면서도 세자가 되지 못한 충녕을 위로하기 위해 “너는 할 일이 없으니 즐기나 하라”면서 거문고와 그림과 글씨, 그리고 원예 등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뽐뽐한 학습 일정에 시달리는 세자 양녕과 달리, 충녕은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충녕은 악기와 서예 등에 정통하게 되었는데, 그의 거문고 실력은 형 양녕을 가르칠 정도

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거문고를 통해 양녕과 충녕이 서로 화목하여 틈이 없는 것을 보고 태종이 흐뭇해하곤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셋째, 세종의 리더십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것은 그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힘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세종은 책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혀 나갔고, 형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지요.

결론적으로, 세종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보면서 새삼 확인한 것은 책 읽기의 중요성입니다. ‘왕따의 조건’을 고루 갖추었던 어린 세종이 ‘대왕 세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라는 창문이었습니다. ‘일 년에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어른이 대다수’라는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장래 대한민국의 리더 양성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꿈꾸고 도전해야 자기혁명 이룰 수 있다

‘자기혁명’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어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자기혁명’이란 무엇일까? 자기계발을 넘어 자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최근 경영혁신을 통해 종합물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세아로지스 류재섭 대표를 만나 자기혁명이 무엇이며, 세아인들이 자기혁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았다.

류재섭
세아로지스 대표

Q 자기혁명이란?

A 자기혁명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냉철한 자기성찰을 통해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과 꾸준한 학습, 진지한 생활태도와 건전한 생활습관을 견지해 이를 착실하게 달성해가는 실천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에 있어 주인이 되는,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동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자기계발과 자기혁명의 차이점은?

A 자기계발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이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발굴해 활용하는 것으로 대개 본인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거나 본인의 장점을 더욱 조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혁명은 깊이 있는 자기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끊임 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혁명이 자기계발보다는 고차원적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생의 과업이라고 볼 수 있죠.

Q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A 세아로지스는 직원들에게 1인당 70시간 이상 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해 수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물류연수를 경험할 수 있게해 선진 물류산업 동향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 학습이나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침서나 교양서적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도록 독서경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세아로지스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A 세아로지스는 2009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회사의 신비전 선포와 함께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3가지 부분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조직의 목표와 비전입니다. 조직의 명확한 목표와 비전은 조직원들과 고객 모두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며, 목표

를 향한 조직의 단합과 함께 조직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도전과 창의성입니다. 세아로지스에는 ‘도전 2056’이라는 혁신 구호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목표 및 비전 달성의 의지를 다 같이 공유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자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도전과 함께 강조하는 창의성은 기존의 틀을 깨고 현재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힘으로, 임직원들은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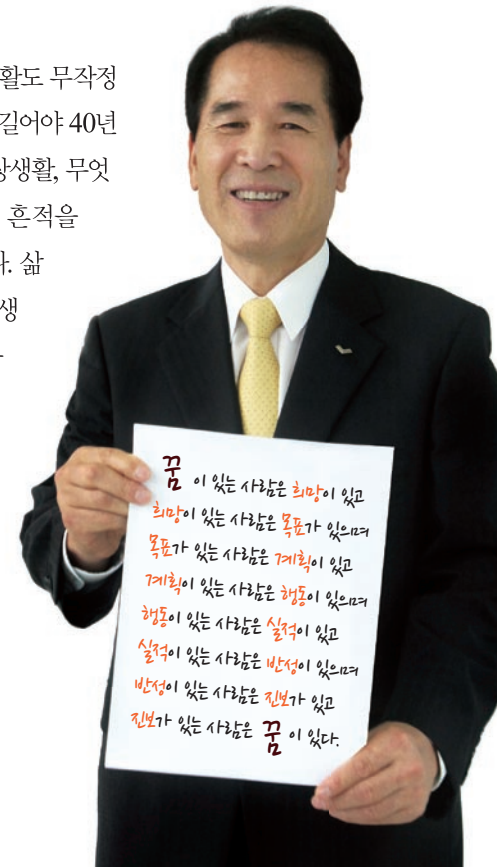
셋째는 자율적 업무 수행입니다. 자율은 타율보다 업무성과가 탁월한 법입니다. 세아로지스는 상사가 시켜서 하는 일보다 각자 스스로가 자기 일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Q 자기혁명을 이루기 위해 꼭 갖추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은?

A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들고자하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가장 경계할 일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힘들고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목표달성에 대한 도전과 열정, 그리고 끈기 있는 실천만이 자기혁명의 과실을 맛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Q 세아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인생은 유한합니다. 직장생활도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어야 40년 안팎입니다. 이왕 하는 직장생활, 무엇인가 의미와 보람이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주인공은 본인이라는 생각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혁명? 자기계발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자기혁명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거나 약간은 낯선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로 이 '자기혁명'이 대세다. 그렇다면 자기혁명이란 무엇인가? 과연 자기계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혁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글: 박상곤 한국오라클 상무, 경영작가

자기혁명(自己革命)

새로운 나를 만드는 도. 전.



자신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도전

왜 자기혁명인가? 자기혁명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 잠재력을 연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하는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자신을 둘러싼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혁명은 자발적 변화, 긍정의 변화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 진정한 변화는 나의 에너지를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하나의 도전이고, 그 결과는 보다 나은 나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자기혁명을 방해하는 요소

변화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은 무엇일까? 첫째는 과거 경험에 의한 관성인데, 이는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현재가 편하다는 현실안주의 편리함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때문에 현실안주를 택하게 된다. 셋째,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 의지와 노력의 부재이다. 자신의 의지가 변화로 다져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을 요한다. 시간과 싸워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방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하여 자기혁명의 가능성을 설파하였다. 또한, 커밍워크(Cumming Walk)는 성공적인 삶에 93%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태도'라고 말했다. 사안이나 사물을 바라보는데 있어서의 관점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준다.

자기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방해요소를 극복하고 자기혁명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자기혁명은 자기 '내면의 변화'와 자신을 둘러싼 외부와 '관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내면의 변화】

첫째, 생각의 변화이다. 새로운 시각을 위해서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상상력과 새로운 관점이다.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마음의 변화이다. 먼저 열정 온도를 높여 보자. 열정은 일을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동의 변화이다. 자기 합리화에 사로잡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관계의 변화】

첫째, 정보의 민감성을 높이자. 외부 정보에 대한 나의 민감도는 어떠한지, 환경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찾고 욕망을 가려야 하며, 정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얻은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둘째,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치적 행위는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개인의 영향력을 성장시켜 주며 궁극적으로 생존력을 강화시켜 준다.

셋째, 신뢰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신뢰 창출 행동의 예로는 비전과 가치에 대한 개방적인 대화, 정직성의 유지, 일관성의 유지, 관심과 공감, 배려, 역량의 보유, 성실한 성품, 언행의 일치 등이다.

지금 당장 자기혁명을 시작하자

진보라는 것은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결코 어떠한 것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변화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변화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를 회피하거나 거스를 수도 없다. 변화는 곧 우리의 삶 그 자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삶의 기술은 곧 변화의 기술을 의미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변화의 기술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 배우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자기혁명의 시작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꼭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세아그룹 팀장 역량강화 교육 현장 한 단계 도약 위해 세아인들 모이다

팀원을 원활하게 이끌어 최대한의 효과로 업무 능률을 올리는 역할 그리고 임원들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훌륭히 보좌하는 역할. 이 모두가 팀장이라는 이름에 필요한 역할이다. 특히 임원과 직원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팀장들이 구심점이 되어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어야 회사는 더욱 발전 할 수 있다. 세아홀딩스가 계열사 모든 팀장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에 실시한 ‘세아그룹 팀장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5가지 핵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길을 제시했다. 글: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파트 육지원 수석



세아의 발전 위한 팀장 교육

‘세아그룹 팀장 역량강화’ 교육이 6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IGM 세계경영연구원에서 실시됐다. 2박 3일씩 총 6차수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세아그룹 19개 계열사의 팀장 1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세아의 내외부 현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치관과 리더십, 인재관리, 성과관리를 위한 역량의 세 가지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이를 강의에 적용했다.

모든 팀장들은 직무의 목표달성은 기본, 부하직원을 이끌고 상사를 보좌하는 조직의 관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은 많은 역할이 주어지고 높은 기대를 받는 만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역량을 충전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룹 내의 모든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세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끊임없는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의 주요 프로그램은 팀장 역할 수행에 필요한 5가지 핵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가치관 경영, 리더십(신뢰, 코칭), 프로의식과 상사보좌, 성과관리, 현장혁신 기법 Visual Planning이 그것이다.

5가지 핵심 교육으로 업그레이드

우선 가치관 경영 교육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몰입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물음에 ‘일의 의미와 가치를 통해 내적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었고, 가치관 경영을 통해 조직의 힘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이 다뤄졌다. 그리고 리더십 교육에서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는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이며, 신뢰는 상호관계형성의 기본 조건임을 숙지할 수 있으며, ‘실력, 공정성, 진정성’을 통해 신뢰를 완성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부하직원의 잠재적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서의 코칭 스킬을 익힐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사의 신임을 얻는 든든한 팀장이 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프로의식과 Followership이 강조됐다. 프로의식은 더 큰 목표를 위해 주도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정보 수집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상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믿음직한 follower가 될 수 있다는 방법론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주도성의 원칙, 문제해결기법, 정보관리와 정보제공 등을 학습했다.

또한, 성과관리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가 고민하는 이슈라는 전제하에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설정-모니터링-성과평가’ 단계에 있어 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접해볼 수 있었다. 교육을 받은 팀장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성과관리 교육과 달리 와 닿는 내용이 많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교육의 마지막은 새로운 혁신 기법인 Visual Planning 부분으로 진행됐다. 팀장들은 새로운 혁신 기법인 Visual Planning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전문적이고도 다소 많은 내용을 단기간에 소화하는 일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었으나, 참석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막연히 느끼고 생각하던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볼 수 있었고,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알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항상 큰 고민거리였던 성과관리와 팀원 평가 과정에 가이드 라인이 되었다”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교육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 결과도 강의평가 결과가 4.7점(5.0점), 강의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의견은 92.4점(10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흔히들 클리브랜드의 추신수 선수를 빗대어 Five-Tools Player라고 이야기한다. 야구에서 Five-Tools는 타격의 정확도, 파워(장타력), 스피드(주루능력), 어깨(송구능력), 수비능력의 다섯 가지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즉 Five-Tools Player는 야구의 다섯 가지 기술이 모두 뛰어난 선수를 뜻하는 말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세아그룹 팀장들도 팀장으로서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다섯 가지 기술을 습득하여 메이저리거 급의 ‘Five-Tools Player’로 활약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아의 특성에 맞춤형으로 구성된 교육”, “세아인의 생각과 에피소드를 예시로 활용한 교육”

이번 과정에서는 사전조사 및 과정 개발단계에서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에 세아그룹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하였다. 임원, 팀장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교육내용에 활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생의 공감도 및 현장과의 연결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자기 삶의 혁명가가 되어라

최고의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만족감과 결부된 것인데,

남들이 만들어놓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끝없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만족감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만족감은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 바로 자기혁명의 시작이다.

자기 혁명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이 인식하는 것들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사물들의 시각에 대해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글: 자기계발 클리닉 이숙영 대표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자기 삶의 혁명가가 되기 위해 꼭 갖추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나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첫째, 공감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부하, 상사, 동료 등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은 마음이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한 마음상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열쇠는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의 마음을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느껴보는 일, 즉 공감과 이해다.

혹자는 “내게 상처를 준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란 말인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인간관계순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직장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이해심과 공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고도 화를 내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여전히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기에 나의 감정 또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남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할까? 아쉽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결국 ‘생각한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하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낮은 것과의 마주침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직장은 여럿이 함께 모여 일하는 곳이다. 이러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르도록 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자기 삶의 혁명가가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둘째,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루 중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니체는 “하루 중 3분의 2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자는 노예”라고 규정한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주체적인 삶을 원한다면 비록 현재의 삶에 한계를 느끼더라도 끝까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존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탄생시키는 자기극복이며,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데 쓴 시간들은 다시 자기 자신을 만드는 비료가 된다. 예를 들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골라서 읽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스스로 굳이 해보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좋아하게 만들어가는 것 또한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때사 능동적이어야 한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의식을 통제해 몰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때 비로소 삶의 구동력은 바뀌게 된다. 이 말은 입력을 조절해서 출력을 다르게 하라는 의미인데, 입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바로 ‘생각하기’다.

셋째, ‘생각하기’를 통해 ‘삶의 구동력’을 찾아보자.

흔히 우리의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곤 한다. 뇌를 컴퓨터와 비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해당될 것이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저절로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의 예전 명령어인 화를 계속 입력한다면 어떻게? 소용없을 것이다. 즉, 우리가 원하고 희망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생각하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먼저 생각하기를 설명하기에 앞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들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밥을 먹었을 텐데, 그 많은 식사 중에서 기억나는 게 몇 번이나 되는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까? 대부분 습관적으로 먹었기 때문이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그냥 먹던 대로 밥을 먹었기에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애인과 첫 데이트에서 먹었던 음식은 기억할 것이다. 첫 직장에서 입사축하를 받으며 함께 한 식사는 기억할 것이다. 아주 특별한 식사였기 때문이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깐, 또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니까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생각한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하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낮은 것과의 마주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전화를 하던 애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거나 매일 제 시간에 오던 전철이 오지 않으면 그때서야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저 습관적으로 행동할 뿐, 생각하기의 결과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익숙한 삶을 낮설게 성찰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 뜻과는 달리 항상 낮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미리 낮설어지는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기 삶의 혁명가가 되자.



좌충우돌 세철씨의 직장어사전

대부분의 남자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아마도 여성들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종종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여자 선배를 만나게 되곤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학교 때처럼 후배나 동생 대하듯이 대한다면 큰 낭패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회사는 조직체제로 돌아갑니다. 나이 어린 여자 선배에게도 깍듯이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니 반드시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를 향한 마음

전 세계인이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 올림픽. 이 무대에서 시대가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 이루기도 힘든 꿈을 연속으로 7번이나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양궁 단체전 7연패의 신화,

대한민국 여자대표팀.

이 기록은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팀 안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지, 열정으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아가족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 그 안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열정. 이러한 마음을 모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 되셨나요?



세아베스틸 사우 자녀들의 철강캠프 도전기

철의 고마움도 배우고, 새 친구들도 생겼어요!

철강협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어린이 철강캠프가 13회째를 맞이했다. 세아베스틸은 사내 신청을 통해 캠프에 참가할 직원 자녀들을 모집하고 8월 2~4일 경기도 안성 소재의 엄마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 2박 3일간의 캠프 현장에 동행했다.

올해 어린이 철강캠프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철강 관련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것 외에도
에너지 뉴스쇼를 제작해보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철강업계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철강캠프에는 매년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이 약 170명 가량 집결한다.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체험과 교육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단체 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 독립심 등 강한 심성을 길러주고, 미래 비전과 도전을 향한 용기를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행사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철강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연례 행사가 되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어린이 철강캠프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철강 관련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것 외에도 에너지 뉴스쇼를 제작해보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밖에 마술 배우기, 수중 미니 올림픽, 어깨동무 콘서트, 축제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캠프를 즐기며 친구들과의 화합과 협력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던 철강캠프



소룡초등학교 6학년 정주안 / 세아베스틸 품질보증2파트 정기연 사우 자녀

캠프를 떠나는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가는 철강캠프에 마음이 설렜다. 이것저것 준비를 마치고 나와 같이 철강캠프에 가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모임 장소에 도착해 인원점검 등을 하고 버스에 올라 캠프가 차려진 곳으로 출발했고, 가는 내내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기대 때문에 눈도 감을 수 없었다. 버스 안에서는 새로운 친구들과 캠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친해 질 수 있었다. 친구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사이 어느덧 차는 안성에 있는 수련원에 도착을 했고, 입소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여정이 시작됐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했다. 그렇게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고 두 번째 날이 밝았다. 이를 췌 되는 날에도 역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그 프로그램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 함께 장기자랑, 마술, 화재 시 대피 요령 등을 배우고, 철에 대해 몰랐던 것도 알아가면서 다시 한 번 철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캠프의 모든 것들이 마냥 즐거웠고,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그 밖에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수중 미니 올림픽 등도 함께 하면서 캠프에 온 친구들과 멋진 추억도 만들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마지막 날 '도전! 철강벨을 올라라'에서는 비록 1등은 하지 못했지만 몰랐던 부분을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되어 뿌듯했다. 캠프에 와서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빠 덕분이기도 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꼭 와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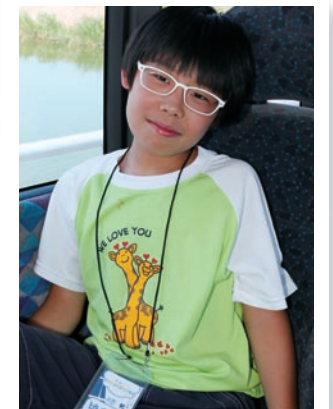
철강캠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다

지곡초등학교 5학년 박찬혁 /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박용철 사우 자녀

3년 전에 형이 철강캠프에 다녀온 후 이런 저런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나도 꼭 철강캠프에 참가하고 싶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꼭 가고 싶다고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고, 추가 모집에 뽑혀서 철강캠프에 가게 됐다. 캠프에 가기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을까?', '무엇을 배울까?' 하는 생각들로 잠을 설쳤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갈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캠프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 준비를 마치고 출발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친구들이 나와 있었고, 얼마 후 우리는 버스를 타고 캠프장으로 출발했다. 우리 조는 가장 일찍 캠프장에 도착해 미리 와 계신 선생님들과 게임을 하며 다른 조를 기다렸다. 다른 조가 도착할 동안 선생님들과 게임을 해서인지 우리는 선생님들과 더 친해 질 수 있었다. 모든 친구들이 도착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대강당에 모여 팀 이름과 구호, 깃발을 만들어 발표했고, 그 다음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뉴스를 만들었다. 저녁시간 장기자랑에서는 춤도 열심히 추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캠프 둘째 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은 우리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컸다. 우리 조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모두 다 즐겁게 수영장에서 놀았다. 수영장에서는 철에 대한 OX 퀴즈도 했는데, 난 퀴즈를 잘 맞추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수영장의 모미인 컵라면을 먹고나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우리 조가 시합에서 다른 조보다 잘해 선물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철강벨을 올라라!' 퀴즈가 진행됐다.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1등 상품이 닌텐도 Wii라는 말에 욕심이 생겨 열심히 했다. 끝내 탈락하게 되어 상품은 받을 수 없었지만 철강캠프를 통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기뻐다. 이번 철강캠프에 보내주신 아빠에게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꼭 참가하고 싶다. 세아베스틸 파이팅!



인도네시아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으려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와
방대한 영토를 보유한 정식 명칭 인도네시아공화국.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우방국이며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하지만 이처럼 활발한 교류를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도네시아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
특히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를 알고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알고 있어야 할
그들만의 비즈니스 매너를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KOTRA 자카르타관 제공

바틱을 입은 인도네시아인과 악수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맨들은 글로벌 환경에서 악수로 하는 인사에 상당히 익숙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손만 맞잡는 일반적인 악수를 하기보다는 악수를 한 후 바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갖다대며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다. 이 간단한 행동이 얼마나 상대를 따뜻하게 만드는지 무미건조하게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하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한다면 이 간단한 악수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이 인사법은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인사법이니 상대방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혹시 여성과 인사를 나누게 되더라도 이 인사법을 활용하자.

인사법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의상이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맨들은 우리처럼 정장을 입지 않는다. 정장 대신 ‘바틱’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을 주로 입는데, 자그맣고 까무잡잡한 인도네시아인이 바틱을 입으면 다소 초라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보이면 상대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바틱을 입은 상대를 만나다면 바틱의 아름다움에 대해 한 번쯤 언급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인도네시아인들이 바틱을 입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굳이 정장을 입지 않아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벼운 셔츠나 재킷 없이 셔츠 위에 타이 정도면 비즈니스 만남에서도 전혀 결례가 되지 않는다.

‘NO’, ‘빨리빨리’를 모르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인 것이다. 그래서 좀처럼 NO라고 말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말에는 YES를 표현하는 단어가 약 12개 정도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NO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가 다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와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중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 받아 들였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 주의하자.

또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협상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빨리 빨리’를 인도네시아 파트너에게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일의 정확성과는 관계없이 대충 처리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는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를 구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각 나라마다 행동패턴이나 성향이 조금씩은 다르고,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관광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을 할 경우에는 방문하는 나라의 관습 등을 미리 파악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매너가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현지인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매너 코리아’를 외치도록 만들어보자.

※바틱[batik]: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초 염색의 독특한 기하학적인 무늬나 천의 명칭이며, 통칭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을 말한다.

Tip

알아두면 좋은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 시 유의사항

- 겉모습으로 바이어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 상담은 느긋하게, 장기전도 생각하자.
- 독점 에이전트는 정중히 그리고 완곡하게 거절하자.
- 상담은 예의를 최대한 갖춰서 하자.
- 사전 약속은 필수다.
- 금요일 오후 약속은 피하자.
- 인맥 관리와 스킨십이 중요하다.



Indonesia

한여름 사직구장을 뜨겁게 달구다!

세아에샵 야구광들의 열정

하루종일 비가 오락가락해 마음 졸이던 날. 그러나 사직구장에 밀려든 인파도, 흠뻑리던 빗줄기도 열정적인 세아에샵 야구 4인방의 흥을 방해하진 못했다. 창원에서 출발, 부산 사직구장에 모인 4인방의 에너지는 그야말로 우주를 평정할 기세. 그들의 신나는 사직구장 나들이 현장을 공개한다!



함께 달리고 치는 야구는
다른 부서원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동료들과 땀 흘리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는 것도 마냥 좋기만 했다.

세상이 비켜라, 버디스가 왔다

사직구장 앞은 진즉부터 바글바글 모여든 부산 야구팬들과 프로모션 행사, 우비를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이 북새통 속에서 멤버들을 찾을 수는 있을까? 매의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 멀리 다양한 체격을 가진 네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 주변 분위기를 압도하는 에너지에 혹시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의 주인공들이다. 폭우가 퍼붓기 전에 사진 촬영이 급선무!

국가대표 유니폼처럼 폼 나는 예쁜 세아에샵 야구동호회 '버디스' 유니폼으로 급히 갈아입고 사진 촬영에 돌입하는 네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포즈와 표정을 바꿔가며 촬영에 임하는 것이 여느 연예인 못지 않은 수준이다. 입이 절로 벌어진다. 사진기자 역시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내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오늘 뭉친 야구광 멤버는 서성호 설비관리팀 과장, 강정환 생산팀 대리, 이형준 판매부문 스테프 과장, 이효진 국내영업팀 과장이다. 모두 세아에샵 야구동호회 '버디스' 멤버들로 벌써 4~5년째 함께 호흡을 맞춰온 동료들이다.

“워낙 뱃이서 친합니다. 지금은 부서가 갈렸지만 처음에는 죄다 생산팀에 함께 있었거든요. 여기에 야구동호회를 함께 하면서 더욱 친해졌지요.”

서성호 과장이 호탕한 웃음소리를 낸다. 동호회에서 총무와 주전포수를 함께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 서성호 과장에게 야구는 삶의 활력, 그 자체다. 함께 달리고 치는 야구는 다른 부서원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동료들과 땀 흘리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는 것도 마냥 좋기만 했다. 총무로서 미미한 점이 많지만 믿고 따라주는 회원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며 씩스러운 미소를 보낸다.





도 떡업떡업 이나마 주말에 만나 연습하고 게임을 하면서, 회사생활이며 인간관계에 빠르게 적응해나갈 수 있었다. 오늘 사직구장 나들이도 형님들과 함께 하는 첫 나들이라 그저 신 나기만 하다. 드넓은 구장에 들어서 이리저리 자리를 찾아 헤맨 끝에 모두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홈구장 유니폼도, 원정구장 유니폼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유니폼을 입고 앉아있는 멤버들의 모습에 오가는 사람 모두 신기하다는 듯한 시선을 보낸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직구장에는 꽤 많은 팬들이 모여들었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 작게나마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 원정 팬들도 눈에 띈다. 오늘의 상대는 SK의 에이스 김광현 선수. 분위기는 벌써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4연승을 달리고 있는 롯데가 내친김에 계속 내달려주길 바라는 열망 덕분이다.

이와중에 이형준 과장이 2루에 보내는 눈길이 각별하다. 딱히 정해진 포지션이 없는 아마추어 동호회에서 주로 2루수를 맡고 있는 이형준 과장에게 2루쪽은 남달리 보일 수밖에 없다.

“다른 종목과 달리 사람이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야구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인 스포츠라는 점이 사람을 중시하는 우리 세아그룹과 닮아 있어요. 회사에서 야구동호회뿐만 아니라 모든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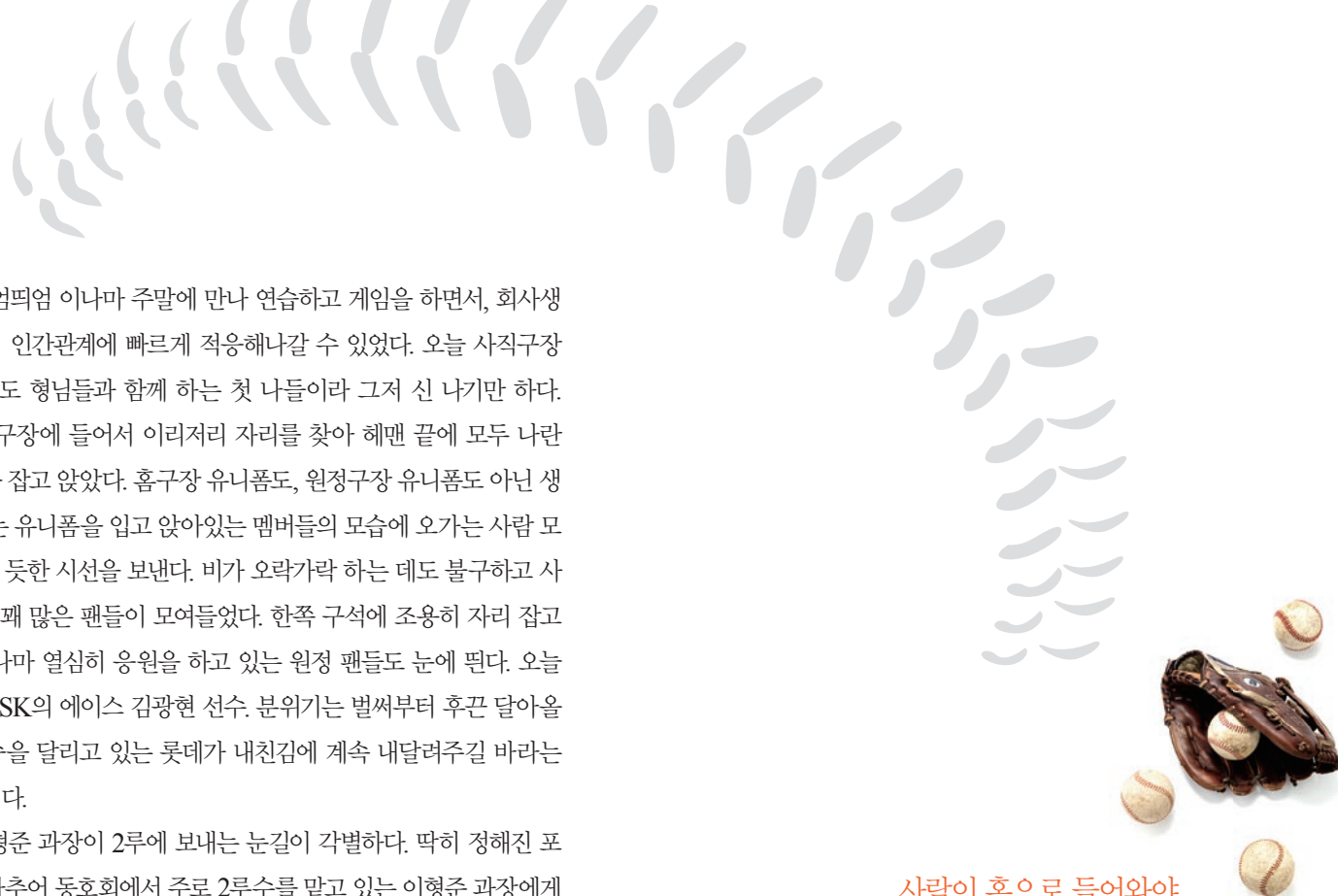
이형준 과장 역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보다 더 자주 모여 사는 얘기도 나누고 우정을 더 돈독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하하”

실력보다 신바람, 버디스 화이팅

야구장 전체에 탄식이 흘러나온다. 상대 투수의 빠른 공 덕분에 그들이 응원하는 팀의 타자가 범타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네 명의 야구광 멤버들도 죄다 입에 오징어나 닭다리를 문 채 무릎을 치며 일제히 안타까워했다. 어쩌면 그리 그 모습이 퍽 닮았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안타와 스트라이크, 헛스윙과 볼에 따라 장내 분위기는 시시각각 변했다. 관중들과 함께 4인의 멤버들도 당연히 일희일비한다. 모인 4명의 멤버 중 가장 늦게 야구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이효진 과장은 “야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죠. 수비도 하면서 공격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뭘 때가 있고 막을 때 있고...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있어요”라는 심오한 말을 들려주기도 했다.

“동호회 활동은 한 번의 실험입니다. 회사 일이 직선으로 짝 뻗어 달리는 것이라면 한



사람이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야구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인 스포츠라는
점이 사람을 중시하는
우리 세아그룹과 닮아 있어요

번 쉬어 가는 게 바로 동호회죠. 실력은 크게 뛰어나지 않아도(웃음) 단결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입니다. 단결력이 좋은 만큼 선후배 관계도 최고고요. 야구를 잘 못해도 욕하는 사람이 없고 잘하면 모두 뭉쳐 영차영차하니 신바람이 납니다. 바람이 있다면... 음... 실력을 좀 키워서 빛을 좀 발했으면 좋겠는 것?”

(네 명 멤버들의 말을 종합해보니 그들의 실력이 뛰어난 건 확실히 아닌 듯싶다.)

2회 공격. 그들이 응원하는 팀의 4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자 사직구장이 들썩인다. 야무진 안타, 혹은 홈런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치솟는다. 그러나 유격수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서자 관중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실망도 잠시, 5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자 다시 구장은 함성소리와 응원소리로 뒤덮인다.

깡! 소리와 함께 중견수 앞 1루타를 날리자 장내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 야구 4인방 멤버 역시 용수철 튀기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하고 열광한다. 어찌나 요란스럽게 응원전을 펼치는지 주변 관객들의 시선이 웃음과 함께 확 쏠린다.

“어이, 아저씨들, 대체 그 유니폼은 어디 팀 꺼요?”

“인물들을 보아하니 얼굴 보고 뺨은 건 확실히 아니네.”

“덩치 큰 아저씨는 포수인가봐?”

주변에 앉은 세아에샵 직원들의 농담에 모두가 폭소를 터뜨린다. 이날 4인방의 열렬한 응원 덕분이었을까? 그들이 응원한 팀은 상대를 5:2로 물리치고 5연승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야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세아에샵 야구광 4인방의 사직구장 나들이는 대성공이었다. 이날 이들이 보여준 열정은 일상에 지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했고, 그 열정으로 회사 생활에 임한다면 그들의 나들이처럼 그들의 인생도 대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됐다.



야구는 인생이다

어느새 경기 시작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야구 경기에 어찌 맛있는 간식이 빠질 소냐. 경기장 뒤편에 뭉가를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에 모두가 합류한다. 알고 보니 오늘은 세아에샵의 이벤트데이!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모두 300여 명이 사직구장에 초대받은 날이었다.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닭튀김에 햄버거, 시원한 음료수까지 받아들고 모두 서둘러 구장 안으로 들어선다. 강정환 생산팀 대리는 연방 싱글병글이다. 직장에서는 모두 하늘 같은 과장님이지만 야구와 관련해서는 ‘끝내주게 좋은 형님들’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회사생활에 적응하는데도 야구가 공이 컸단다. 운동장을 통째로 빌려야 하는 야구경기 특성상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

세아제강 **포항공장, 혁신 워크숍 개최**
7월 20일 포항공장에서 혁신 워크숍이 개최됐다. 상반기 혁신활동을 점검하고 각 부문별 활동의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여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워크숍은 기조설명을 시작으로 포항공장의 상반기 목표 대비 실적을 살펴보고, 각 파트별 개선점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토의와 발표가 이어졌다.



‘희망풍차 오케스트라’ 악기 후원
대한적십자가 7월 12일 창단한 ‘희망풍차 오케스트라’에 세아제강이 악기를 후원하게 됐다. 금난새 단장을 제외한 76명 단원 전원이 탈북 청소년으로 구성된 최초의 오케스트라인 희망풍차 오케스트라는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음악을 통한 심리 치료뿐 아니라 예술적 재능 발굴의 기회를 주고자 창단됐다. 세아제강이 지난 해 연말 대한적십자에 1억 원을 기탁했으며, 그 금액은 이번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서 연주에 필요한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트럼펫 등 악기를 구입하는데 쓰이게 됐다.

이선구 과장, 글로벌 혁신 컨퍼런스 수상
6월 21~22일 대전에서 개최된 2012년 글로벌 혁신 컨퍼런스에서 혁신팀 이선구 과장이 공장 혁신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추진자 부문 포상을 받았다. 올해 컨퍼런스는 ‘혁신으로 비상하는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우수 혁신활동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혁신활동과 관련하여 군산공장은 2007년부터 TPM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왔으며, 2008년부터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은상 2개와 동상 3개를 수상한 바 있다.



세아베스틸 **최우수 품질분임조 2연패 달성**
6월 14일 전북대에서 개최된 2012년 전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세아베스틸 제강팀 핫살 소그룹이 현장개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총 19개 팀이 참가해 열린 경쟁을 펼친 가운데, 핫살 소그룹의 ‘전기로 공정 개선으로 조업시간 단축’ 개선사례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 세아베스틸이 2년 연속 최우수 소그룹을 배출하는데 공로를 세웠다. 핫살 소그룹은 8월 말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한다. 한편, 대형정정팀의 하나로 소그룹도 장려상을 추가하는 한편, 연주팀의 조남진 기장이 611건의 뛰어난 제안 실적으로 품질유공자로 선정됐다.

아빠와 함께 현장체험 여행 개최
세아베스틸이 기업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아빠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 1차 여행을 6월 23일 임실의 치즈테마파크에서 추진했다. 바쁜 일상으로 가족과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갖기 힘들었던 세아베스틸 직원들에게 여행과 체험을 테마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1차 여행은 직원과 자녀 40명이 참여했으며, 소통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 20명씩 2개 조로 나누어 피자-치즈 체험, 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특별강연 개최
세아베스틸은 6월 21일 전 SK와이번즈 김성근 감독을 초청해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120분 동안 명사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 윤기수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김성근 감독은 신상필벌을 공정하게 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리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 사람의 인생은 생각, 행동, 습관, 성격, 인격, 인생, 운명의 순서로 변화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연에 참석한 직원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기회를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멘토·멘티 자원봉사 참여
올해의 멘토-멘티가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6월 1, 15, 28일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총 50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역전경로식당에서 배식, 설거지, 식당 청소 등을 함께 수행하면서 진행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멘토-멘티는 업무 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기회가 됐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사1병영’ 자매결연 협약
세아베스틸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6월 27일 충남 서산 해미면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승휘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했다. 한국경제신문과 국방부가 주관하는 1사1병영 운동은 기업과 군부대가 상호 교류하면서 안보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장병의 사기 진작과 민군의 유대를 강화해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확산되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임직원의 안보교육과 병영캠프를 실시하고, 장병들을 위한 재테크 및 경제 강의, 전역 예정 장병을 위한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희망이음 프로젝트 참여 대학생 방문
2012 청년인재-지역우수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54명이 7월 12일 세아베스틸을 방문했다. 대학생들은 지난해 우리 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세아베스틸을 방문해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프로젝트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과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있다.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원가절감 워크숍 개최**
충주공장이 7월 20~21일 강원도 홍천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원가와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서별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극태 충주공장장은 워크숍에서 발표된 원가 절감과 품질확보 방안들을 관리 지표로 만들어 하반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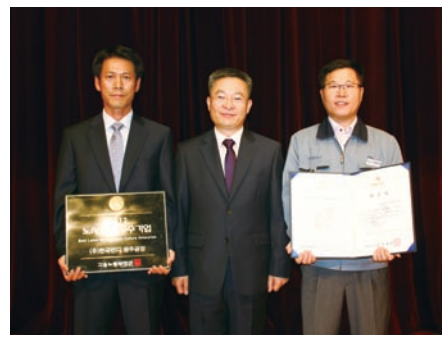
충주공장, 충북 품질경영대회 우수상 수상
6월 12~15일 충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2012년 충청북도 품질경영대회에서 충주공장 생산팀 신선공정의 Fighter 소그룹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북 소재의 28개 기업 소그룹이 경합을 펼친 가운데, Fighter 소그룹은 현장개선 사례로 ‘신선1호기 공정개선으로 비가동시간 감소’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어 전국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획득했다.



한국번디 **자동차부품가공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한국번디가 7월 16~27일 중국 칭다오와 쑤저우 법인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가공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번디의 자회사인 우진정공 인천공장의 생산현장에서 브레이크 및 연료 공급장치 관련 제품의 제조라인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중국 법인들이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가공 역량과 고객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광주공장, 노사문화 우수 기업 선정

광주공장이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7월 12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2006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을 하게 된 광주공장은 이번 수상을 상생의 노사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 상생 경영을 위한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북경 전시회 참가

세아에사는 6월 4~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7회 북경에센용접&절단 전시회(The 17th Beijing Essen Welding & Cutting Fair)에 참가했다. 매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업계 전시회 중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용접 재료 및 장비, 절단장비, 자동화 시스템, 각종 용접 관련 소모품 등 용접과 절단 산업 전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전시회는 올해 17회째를 맞았으며, 세아에사는 2002년부터 11회 연속 참가하고 있다.

터보사업부, 안전기원제 개최

세아이엔티 터보사업부는 6월 21일 대전공장 증축을 기념하는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터보사업부 및 자회사인 엔틀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춘택 이사의 진행으로 터보사업부와 엔틀의 무한한 발전과 무사고를 기원했다. 세아이엔티 대전공장은 터보사업부의 압축기 사업의 생산 거점이었으나, 올해 2월 인수한 터보블라워 업체 엔틀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장 증축에 들어갔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

세아로지스가 8월 18, 19일 양일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발표와 함께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오랜만에 세아로지스의 전국 9개 사업장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경영실적을 분석하고 하반기 부문별 목표 달성 전략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세아로지스가 추진하고 있는 '도전 2056'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취지에서 직원들이 단합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삼화보세장치장 안전기원제 개최

세아로지스가 부산 삼화보세장치장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7월 26일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삼화보세장치장은 세아그룹이 태동한 부산공장 건물에 소재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세아로지스가 인수하여 보세장치사업을 개시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안전기원제에는 류재섭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화물주, 그리고 협력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류재섭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삼화보세장치장이 부산지역의 복합물류기능을 갖춘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내 사회봉사단 봉사활동 시행

강남도시가스의 사내 봉사활동 단체가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6월 6일과 7월 7일 각각 보육시설환경 개선과 소외 계층 집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희망나눔팀은 공급권역 내 어린이 보육시설을 방문해 기증 물품을 전달하고, 강당, 컴퓨터실 등 9개 구역을 할당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한편, 기쁨나눔팀 또한 금천구청 사회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공급권역 내 소외 계층인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주거공간을 위생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썼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아제강

•입사

이동혁 본사 경영혁신팀
송인한 본사 자금팀
조원희 본사 구매팀
권병수 본사 생산계획팀
서보성 본사 STS영업팀
홍정현 본사 회계팀
박용규 포항 기술연구소
하정우 포항 기술연구소
정기용 포항 기술연구소
정소희 포항 기술연구소
정우석 포항 생산2팀
노진웅 포항 생산2팀
천진열 포항 생산기술팀
고형석 포항 생산기술팀
신민철 포항 품질경영팀
김소영 포항 품질경영팀
진태훈 포항 품질경영팀
이승윤 포항 품질경영팀
허재림 포항 업무지원팀
장지현 창원 생산팀
이병래 광주영업소

•결혼

우연정 부산 대리점팀
한정우 본사 특판팀
고재영 창원 업무지원팀
임창원 포항 생산1팀

•출산

박승균 본사 인력개발팀
조민성 본사 구매팀
신재협 포항 생산기술팀
두동규 포항 품질경영팀

김 환

포항 생산2팀
정원민 포항 품질경영팀
염시운 창원 품질경영팀
김진현 군산 생산2팀
정병철 군산 생산2팀
허남진 강관2 생산2팀

•조의

박기환 포항 생산1팀(모친)
안병대 포항 생산2팀(장인)
김국한 포항 물류팀(장인)
장흥석 포항 생산2팀(장인)
임준혁 창원 품질경영팀(장모)

세아베스틸

•결혼

김병석 가공기술팀

•조의

임성환 압연설비팀 (부친)
서화석 자동차부품팀 (모친)
김종선 연주팀 (모친)
김병동 제강팀 (모친)
조현구 소형압연팀 (장인)
최재연 에너지관리팀 (장인)
유광석 대형정정팀 (장인)
박현준 품질보증팀 (장모)

세아특수강

•입사

최현수 충주2 생산팀
유원중 충주2 생산팀
윤영호 충주2 생산팀

이성혁

충주2 생산팀
전운우 충주2 생산팀
이현우 충주2 설비팀

•출산

권 안 포항 품질보증실
황영기 포항 생산팀
박용현 포항 생산팀
배재상 서울 봉강판매2팀

•조의

김재학 포항 생산팀(부친)
조재일 포항 생산팀(부친)
최태윤 포항 생산팀(장인)
김민수 충주 품질보증팀(숙부)

한국번디

•출산

김태우 평택 구매팀
최금옥 평택 구매팀
박종욱 광주 생산팀
윤옥근 광주 생산팀
문정만 광주 생산팀

•조의

강영일 평택 생산팀(동생)
양봉만 평택 생산팀(장인)
이대성 평택 생산팀(조모)
인태선 평택 생산팀(백부)

세아메탈

•입사

김상수 창원 생산혁신팀
황성택 원주 경영지원팀

세아ESAB

•출산

조창제 해외영업팀

•조의

안경운 생산팀(장인)
탁성봉 생산팀(부친)

세아E&T

•입사

김종경 플랜트 토목건축팀
조지연 화공 영업팀
박수연 화공 자재구매Part

•출산

김현재 플랜트 QA Part

•조의

윤여덕 터보 생산반(모친)
최홍만 터보 생산반(모친)
박진희 화공 품질보증실(조모)

세아M&S

•입사

김인호 생산팀
이성진 생산팀
김재림 재경팀

세아로지스

•입사

안도현 군산운영팀
이민중 충주영업소

QUIZ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주세요.

〈정답표시는 옆서에 해주세요〉



*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 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SeAH Reader's

테마 스토리, 세아홀딩스의 '금주의 짝' 프로그램이 기발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구성원들과 즐겁게 화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진들이 재미있었습니다.

강미화 창원 성산구 웅남동

소통의 힘을 이야기한 테마 인터뷰의 유덕상 대표님의 칼럼을 잘 보았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직장생활만을 위한 덕목이 아닌 행복한 인간관계 형성의 밑거름이라는 메시지가 와 닿았습니다. 특히 '꿈을 크게 꾸어라'라는 말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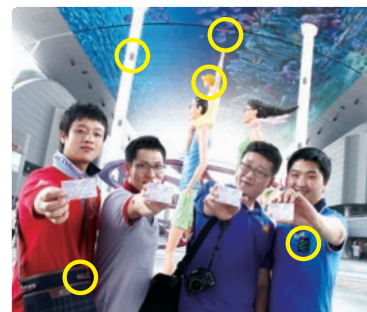
김미순 창원 의창구 옹호동

장학재단의 2012년 장학증서 수여식 소식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게 될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세아의 기업정신이 모범적으로 보여진 훈훈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송재하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지난 퀴즈 당첨자

송재하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안윤희 광주 광산구 신가동
조용철 포항 남구 상공로
권현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신분주 양산 물금읍 범어리
소현수 세아메탈 창원공장
강미화 창원 성산구 웅남동
김미순 창원 의창구 옹호동
오동원 창원 의창군 대산면 가솔리
김수곤 포항 남구 장흥동



〈지난호 퀴즈 정답〉

〈세아가족〉 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김동기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기획팀
손은숙 세아에셋 경영지원실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상기 세아이엔티 플랜트사업지원팀
김민구 세아엠앤에스 서울사무소
손성영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지원팀

당신의 생활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새로워질 것이다
빠르고 안락한 자동차와 고속철이 새로워질 것이다
더 거대한 선박이 바다를 누빌 것이며
더 놀라운 설비시스템과 IT기술 및 에너지산업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새로움을 더해줄 것이다
이것이 세아가 종합 인프라기업으로 혁신해 나간다는 증거다

SeAH 세아

세아홀딩스 · 세아제강 · 세아베스틸 · 세아특수강 · 한국번디 · 세아ESAB
세아메탈 · 세아M&S · 세아네트웍스 · 강남도시가스 · 세아로지스